

가을 수박, "아주심기 초기 매개충 방제 철저"

농진청, "황화 바이러스병... 8월 밀도 높아지면 감염 위험"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8월 어린 모종을 아주심기하는 가을 수박 시설재배 농가에 황화 바이러스병 발생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과 작물에 황화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는 진딧물이 매개하는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 멜론 진딧물 매개 황화바이러스(MABYV)와 담배가루이가 매개하는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CCYV)가 알려져 있다.

지난해 전국 주요 수박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는 8.7%, 멜론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는 5.2%,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는 8.5%가 검출됐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잎에는 황화, 과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과실은 자라지 못해 크기가 작아진다. 심할 때는 정상과의 절반 이하까지 상품성이 떨어진다. 재배 초기 증상은 열량소 결핍 등 생리장애와 비슷하고, 재배 후기 증상은 잎이 노화돼 누렇게

되는 걸로 오인하기 쉬워 농가에서 황화 바이러스병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

가을 수박 어린 모종 아주심기 시기인 8월에 매개충 밀도가 높아지거나 지난 작기에 감염된 작물이 시설에 남아있으면, 모를 기르는 초반에 바이러스에 감염돼 수박 생육에 큰 피해를 준다.

황화 바이러스병 피해를 줄이려면 수박, 멜론을 이어짓기하는 농가에서는 수확 후 남아있는 식물과 잡초 등 바이러스 전염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황화 바이러스병은 다른 바이러스병과 달리 식물 상처로 전염되지 않으므

로 농작업 과정에서 추가 확산하지 않는다.

또한 진딧물, 담배가루이 등 매개충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매개충 발생이 확인되면 밀도가 증가하기 전 신속하게 전용 약제를 3~7일 간격으로 2~3회 연속 뿌린다.

이때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저항성 정도가 낮은 약제를 번갈아 살포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이세원 과장은 "박과 작물의 황화 바이러스병 피해를 예방하려면 황화 바이러스병을 옮기는 매개충을 아주심기 초기부터 철저히 방제해야 한다"며 "특히 수박, 멜론을 이어짓기하는 농가에서는 지난 작기의 잔재물을 확실하게 제거한 후 아주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디지털혁신 기술 교류회' 개최

전개공, 도시개발공사와 공공기관 간 기술 격차 해소 위해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공기관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혁신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9일 공사 2층 회의실에서 경남·경상북도·충북개발공사 등 전국 10개 도시개발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난달 28일에 진행된 1차 교류회에서는 도내 출연기관 6개 기관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교류회에서는 참여 기관 간의 디지털 혁신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주요 기술로는 △AI 기반 챗봇 플랫폼(모든지 사원) △AI 활용 전자문서, 민원 자동배부 △결재문서 자동 스크래핑 △전자문서 내 개인정보 추출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었다. 이들 기술은 모두 무료

로 배포되어 참여 기관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Q&A 세션을 통해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디지털 혁신 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기술 도입 시 직면하는 어려움과 해결책을 공유하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공사 디지털혁신팀 관계자는 "이번 기술교류회를 통해 전국 도시개발공사이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사의 발전을 이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벌초대행 서비스 사전예약 실시

부안군산림조합은 조상·가족모자란 리 벌초대행서비스(묘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님의 벌초와 묘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 및 출향인을 위해 벌초대행 업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유림 산림경영지도 및 임업분야 전문가인 부안군산림조합은 벌초대행 서비스를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벌초작업 후 작업사항을 사진으로 남겨 위탁자에게 송부하고 단골고객과 산림조합원의 경우 할인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벌초대행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커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오세준 조합장은 "내 부모와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벌초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벌초대행 서비스를 통해 부안을 찾아주시는 귀향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산림분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찾아가는 산림경영지도 시행을 통해 조합원과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산림조합의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석 전 벌초대행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부안군산림조합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63-584-3089)로 편리하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중기청, 2025년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지원 모집 공고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특성화시장 육성 등 총 9개 사업 대상 9월 2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인태웅)은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오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지원 대상과 내용을 미리 결정하여 지자체와 전통시장이 정부 지원사업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다.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통시장별 수준에 맞는 정책지원을 위해 각 시장 지원을 사업단 계별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하였다.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확대 추세와 시장유형별 특징을 반영해 상점가형과 전통시장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디지털 수준에 따라 첫걸음과 고도화로 나누어 지원한다.

두 번째, 전통시장내 실질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시장단위 지원에서 점포단위(전기안전등급 DE 등급 대상)까지 확대하고, 기존 전기시설(노후전선정비) 및 소방시설(화재감지장비 설치) 지원에서 가스시설(가스검지기)을 추가하는 등 지원종류도 대폭 확대했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mas.or.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육기 기자

여성가족재단·전북광역세일센터, 제5회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광역여성세일센터(이하 재단, 원장 전정희)는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예비(초기)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제5회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5회째 맞는 여성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여성들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사업화 자금, 멘토링, 인큐베이팅 및 지역지원 연계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지역은 전북도내 예비 여성 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여성으로 개인 및 팀 단위 참여도 가능하다. 지원은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jbwomen@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회 일정은 1차 서류심사, 2차 창업캠프, 3차 경진대회 당일 발표대회 순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하는 창업캠프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과 창업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선 발표대회에서는 상위 5팀을 선발하여 최우수상 200만원(1팀), 우수상 100만원(2팀), 장려상 50만원(2팀)을 사업화 자금으로 총 500만원의 상금이 지원된다.

특히 우수상 2팀에게는 (사)벤처기

업협회 전북지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의 상과 상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대회 이후에는 지속적인 창업 멘토링 및 창업 프티마켓 등 창업 공간 연계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전정희 원장은 "창업을 준비하는 도내 여성들이 우수한 창업아이디어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성공 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재단은 도내 여성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여성 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전문 창업상담사 배치와 여성창업 아카데미, 창업컨설팅, 예비창업자를 위한 상설 프티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한은 전북, 중소기업에 추석 특별자금 100억 펀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기현)는 중소기업에 100억원 이내로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거래해 왔던 도내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5억원 이내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업, 유흥업, 금융 관련업 및 전문서비스업 등 대출 제외업종과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우량 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9월13일까지다.

한은 전북본부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금액의 50% 이내(일반지원 부분 지원 비율로 비례 배정)를 연 2.0%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공급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이 대출금리 경감 혜택을



한은 전북본부 전경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자금 지원으로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운영 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 등에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